

역대연봉 넘어 '부르는 게 값'

# AI인재 없는 AI기업... 그나마 모셔와도 2년후 이직

**미래동력 AI 활성화**

③ '언감생심' AI 고급인재

韓 출신 세계 AI핵심인재 1.4%  
한국활동 전문인력 1.8% 불과

"AI 관심에 인건비 천정부지  
중기·대기업까지 리스크 커져"

정부, 인재 양성위해 대학원 확대  
AI인력 여유생기면 거품 빠질 듯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댐' 사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등을 통해 약 2만4000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지난 6월 광주에서 개최된 '광주형 인공지능(AI) 일자리 창출 인재 채용설명회' 모습.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호소하는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AI 인재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월 발표한 '인공지능 기술활용인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AI 핵심인재 500명 중 한국 출신은 1.4%로 1위를 차지한 미국의 14.6%, 2위인 중국의 13.0%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AI 전문인력 2만2400명 중 한국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8%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내에 AI 인재가 드물어 몸값이 높고, AI 전문업체들의 대다수가 스타트업이다 보니 유능한 석박사급 인재를 뽑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AI 국내 석사 초봉 7000만~1억원, 실리콘밸리 박사 초봉 2억대, 최고급 인재는 '부르는 게 값'

AI B2C 서비스 기업의 대표 주자인 카카오·네이버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고 AI 사업에 집중하다보니 거액을 들여 국내 AI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영입

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들도 앞다퉀 AI 인력을 채용하면서, AI 인력의 초봉이 7000만~8000만원부터 시작해, AI 석사를 막 졸업하면 7000만~1억원에 연봉이 형성되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박사급 인재 초봉은 20만 달러(약 2억3700만원)부터 시작된다는 것.

한 AI 기업 대표도 "AI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인건비가 치솟아 AI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I 전공인력을 일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수준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6개월 간 인건비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높아진 인건비를 해결하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흥섭 마인드랩 기술 부문 대표도 "AI 분야에서 논문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스타급 AI 고급 개발자는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하다보니 10억원을 연봉으로 제시하기도 하는 등 '부르는 게 값'

일 정도로 연봉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 AI 대표 기업은 박사급 인재를 구하는 것은 무리다 보니 과학영재 등 똑똑한 학부나 석사 졸업생을 뽑아 사내에서 AI 엔진을 주고 직접 가이드하면서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성장욕을 충족시키고, 능력 있는 학부 졸업생에게 1년 만에 역대 연봉을 주는 등 네이버·카카오보다 더 나은 연봉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AI 기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 연구원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다 보니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직으로 이어진다는 문제를 호소했다.

◆AI 인재 채용해도 현장감 부족 기대 못 미쳐, 입사 2년 후 더 좋은 회사 찾아 떠나는 건 '부지기수'

스타트업들이 AI 인재를 채용해도 '보여주기식 스펙'이 많다보니 실제로 산업계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AI 기업 대표는 "AI 인력들이 산업계에 밀착되기보다 학술적, 대외적으

로 스펙 쌓기에 치중하다 보니 바로 업무에 투입하기 어렵다"며 "산업계의 실제 데이터를 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논문이나 외국 유튜브로만 공부한 경우가 많아 교육이 필요한데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또 AI 교수진 부족으로 대학에서 AI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오래 전 공부한 경우가 많아, 최신 기술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 현장의 AI와 큰 괴리가 있다는 것.

AI 인재 채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양성된 인재는 2~3년 후 내로라하는 회사로 연봉을 크게 올려 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는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등으로 이직하거나, 구글·페이스북 등 아예 미국 AI 글로벌 기업으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AI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AI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을 늘리고 있는데, 이 인력들이 산업계로 배출되려면 빨라야 2022년에서 2023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건비 문제는 AI 전문인력이 더 많이 배출되어야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AI 업계 대표는 "2000년대 초 인터넷 붐이 일면서 인터넷 개발자 인건비가 경중 뛰었는데, AI 인력은 그때보다 더 비싸다"며 "최근 AI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AI를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도 늘어 수년 후 수요·공급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에서 '인건비에 거품이 있다'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인건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AI 인력이 여유가 생겨 대기업에서도 다 수용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정부 AI 디지털 인재 양성 외치지만 대부분 단기 일자리, 장기 인력 육성 시급

정부가 2일 '데이터 댐' 사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선정기업들이 클라우드소싱 등으로 약 2만8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의 AI 일자리가 단기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기업들은 정부의 인재 양성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양새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6개월 동안 단기 데이터 구축 인력을 한 달에 180만원씩 지원해주고 협회 등을 통해 수십명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0만원을 더 주는 정도였다"며 "그러다보니 AI 디지털 인력은 기업들에는 단기 인력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고용 지표상 청년 고용률이 높이는 효과를 내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AI 기업에서는 단순 데이터 라벨링 인력 고용은 별 도움이 안 되고, 장기적인 차원의 인재 육성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디지털뉴딜 핵심 '데이터 댐'에 4991억 투입

과기정통부, 2103개 지원기관 확정 AI바우처 등 7대 핵심사업 본격추진 관련 일자리 2.8만여개 창출 전망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총 4991억원이 투입되는 '데이터 댐' 사업 지원을 받을 총 2103개 지원 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등을 통해 2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데이터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의료 등 AI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중 모임을 킵프하고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7대 핵심사업들을 수행할 주요기업 등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 댐은 미국 대공황 시기의 '후버댐' 건설과 같은 일자리와 경기부양 효과에 더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사업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

우처 ▲AI 데이터 가공바우처 사업 ▲AI 융합 프로젝트(AI+X)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바우처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이다.

우선, 2925억원이 투입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4.2:1의 경쟁률을 기록해 총 584개 기업·기관이 선정됐다. 주요 AI 개발 전문기업, 클라우드 소싱 기업은 물론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등 37개 대학산학협력단과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21개 주요병원 등이 참여했다. 한국어 말뭉치, 농작물 병해충 이미지, 잠질환 영상 등 텍스트 7억건, 음성 6만 시간, 이미지 6000만건, 영상 1만5000시간 등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해 국내 AI 산업의 도약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60억원이 투자되는 AI 바우처 사업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2.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개발부터, 창업, 치매예측, 투자분석, 수어번역, 법률, 대기오염 측정 등 17개 분야에서 최종 209개 과제가 선정됐다.

489억원이 배정된 AI데이터 가공바우처 지원사업은 1152개 과제 중 최종 620개가 지원 적격 수요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의 비중이 늘어나 데이터 활용이 소규모 사업체까지 확산되고, 데이터 기반 창업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AI와 산업을 융합시키는 AI 융합 프로젝트(AI+X)에는 282억원이 투입되는데, 다수 프로젝트에서 경쟁형 방식을 도입해 총 16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선정된 AI 기업 중에는 의료·머신비전·사회간접자본(SOC) 등 특화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250억원이 투입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중기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제조 플랫폼을 제외한 4개의 플랫폼 개발 과제와 63개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사업 플랫폼 개발에는 KT, NBP, NHN 등 국내 대표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하고, 서비스 개발은 중소기업이 주도해 대·중·소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클라우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2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 '데이터 댐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용바우처 사업(80억원)은 337개 기업을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9월 중 수요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연내 총 600개 이상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405억원이 투자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은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5개 플랫폼과 50개 센터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14개 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신청해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 평가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데이터 구축 공통 가이드라인'을 추경 사업에 적용하고, 주요 산업별 'AI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을 개발해 국내 표

준화를 진행하고, 국제표준화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정량적 품질평가 지표 도입, 품질평가자문단 운영, 품질평가 전문조직 활용 등 품질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도 병행함과 동시에 디지털 뉴딜단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해 데이터 댐 관련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채윤정 기자